

공유형주택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 서울시, 불합리·불필요 규제 철폐

자연재해로 행정자산 손해 발생시 복구비용 등 일방적 부담 제한키로 온누리상품권 신규사용처도 확대

서울시가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 형태 주거 공간 전입 신고 제출 서류를 일원화한다. 또 시민이 행정 재산 사용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관행처럼 여겨졌던 행정 행태도 뜯어고친다. 아울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개선한다. 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 철폐 패키지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전입 신고 서류 일원화에 착수한다. 그간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의 경우 전입 신고 때 동주

민센터마다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다. 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 재산 사용 허가 부당 특약 방지'에 나선다. 현재 행정 재산 사용 허가 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 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행정 재산 사용·수익 허가 조건 표준안을 개정키로 했다.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를 통해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골목형 상점가 100곳을 신규로 지정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게를 늘릴 계획이다. 관광 경기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광 숙박 시설의 용적률도 완화한다. 명동, 북창동 일대 등에 관광 숙박 시설을 조성하면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들에게 '규제 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 행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지난달 25일 새날지역아동센터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설 이용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415곳에 예산 677억 투입

서울시, 운영 활성화 계획 시행 노후센터 환경개선비 전액 지원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케어하는 시설이다. 현재 시는 관내 총 415개 센터를 통해 아동 1만1304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투입 예산은 전년 대비 61억원 늘어난 총 677억원이다. /김현정 기자

우선 시는 노후 센터의 환경 개선비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급식비와 간식비도 제공해 먹거리 품질을 높인다. 이와 함께 시는 종사자 처우 개선, 서울권 학습실 설치,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 확대, 취약 아동 건강 성장 프로그램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초·중·고 검정고시 원서 17~21일 접수

서울시교육청, 현장·온라인 병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교부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검정고시 원서접수는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현장 접수는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되며, 17일부터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https://kged.go.kr)'에 접속해 1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다. 시교육청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만큼 접수처 혼잡도 완화를 위해 온라인 접수



지난해 8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참석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기 발송해야 한다. 서류는 21일 발송분까지 인정된다. 검정고시 원서를 접수하는 장애인 지원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준비돼 있다. 현장 원서접수장 내 '장애인 지원자 접수처'를 운영해 지원자가 1대 1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집에서 가까운 시험장 안내 ▲대독, 대필, 확대 문제지 신청을 위한 '장애인 편의 제공신청서' 작성 지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5년 제1회 검정고시는 오는 4월 5일 시행된다. 합격 여부는 5월 8일 서울시교육청 누리집(www.se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험 일정,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탑재된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lhj@

원거리 대학진학 주거비 연 240만원 지원

교육부, 내달 18일까지 장학금 접수

정부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해 주거지 마련에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 4만여 명에게 올해부터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자가 기존 소득 8분위에서 9분위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는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4년제 대학 162곳과 전문대학 93곳 등 총 255개 대학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거안정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계절학기 수강 시에는 방학 중에도 지원된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돼 주거안정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님 주소는 전북 남원인데 대학 소재지는 전주 시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전주시와 남원시와 인접한 시가 아니어서 교통권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시교육청, 12일 고3 대입 진학설명회

7일 '진학지도 자료집' 공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상수)은 2026학년도 대입을 대비해 12일 '고교 3학년대상 진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7일에는 '진학지도 자료집'도 공개한다. 수험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진학을 설계하도록 도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026 대입은 의대 증원에 따른 수험생 수의 증가와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여러 변화 속에서 진행되면서, 예비 고3 수험생과 학부모는 보다 공신력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입 진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진학 설명회 및 진학지도 자료집 제공한다.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췌진학 나침반 고3 학년 초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 설명회는 12일 오후 5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교육 썸TV'(www.youtube.com/live/umEo9NNyyHw)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6 대입 수시모집 이해와 대비' '2026 대입 정시모집 이해와 대비' 등을 포함한 총 2개 강의가 열린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86억 지급

서울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386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4만가구와 차상위계층(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4만6000가구를 포함 총 38만6000가구이다. 시는 가구당 10만원을 난방비로 지원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달 둘째 주부터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광명 일직동에 문화센터·공공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 534억 투입

광명시가 문화·예술·교육시설이 부족한 일직동에 문화예술복합센터와 공공도서관을 한 곳에 건립해 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윈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및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문화예술복합센터와 도서관은 광명 문화공원 부지인 일직동 528-1에 건립된다. 센터와 도서관은 같은 부지내 건립되는 만큼 연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물 내·외부 공간, 동선, 입면 디자인 등이 통합 설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문화예술복합센터를 사업비 338억 원을 들여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약 5145㎡ 규모로 건립한다. 내부에는 ▲공연장 ▲카페테리아 ▲오픈갤러리 ▲청년 문화예술 창작 공간 등이 들어선다. 지상 1층과 2층에는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 카페테리아, 오픈갤러리를, 지상 3층에는 문화체험실을 조성한다. 공공도서관은 사업비 196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약 4139㎡ 규모로 만든다. 이곳에는 ▲어린이열람실 ▲북카페 ▲각종 체험실 ▲종합 자료실 등이 들어선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